

조선/기계/운송 Analyst 배기연 RA 오정하

02. 6454-4879
kiyeon.bae@meritz.co.kr02. 6454-4873
jungha.oh@meritz.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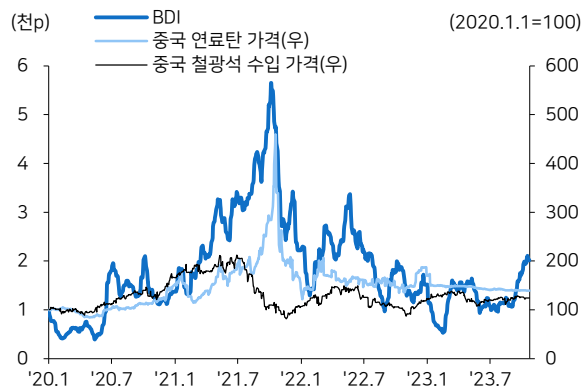
2023. 10. 27 (금)



국내외 주요 지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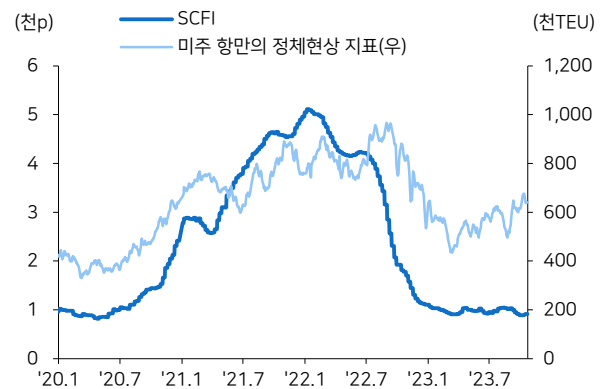
건화물운임(BDI)

1,662.0p(-170.0p Do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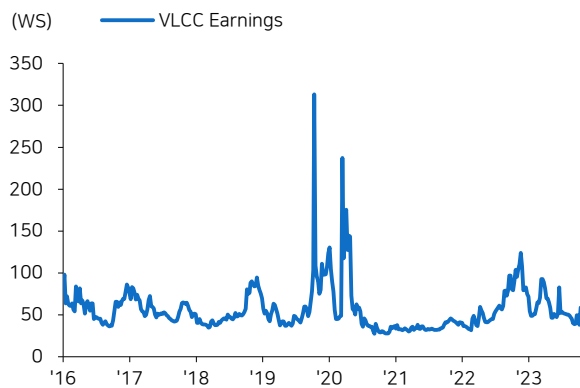
컨테이너운임(SCFI)

917.7p(+26.1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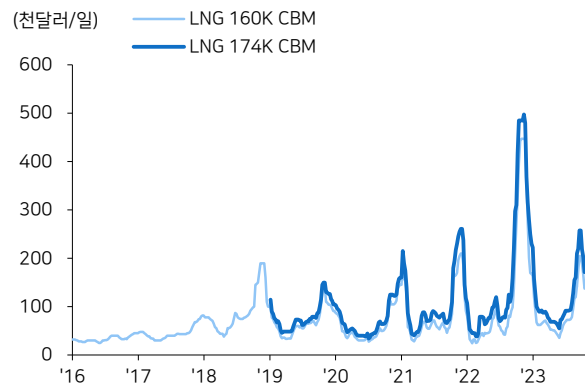


VLCC Spot Ra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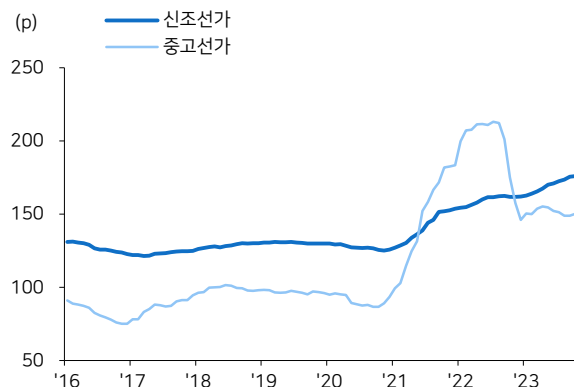
55.4p(-3.4p WoW)



LNG Spot 운임

140.0천달러(+2.5p WoW)
175.0천달러(+3.8p WoW)

신조선가 및 중고선가

175.9p(+0.3p WoW)
150.1p(+0.7p WoW)

중국 내수 후판가격

520.0달러(-p DoD)



자료: Clarksons,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국토부, 항공 동계 정기편 일정 확정... 내년 3월까지 적용

국토교통부는 동계기간 국내·국제선 정기편 항공운항 일정을 확정했다고 보도됨. 동계기간 운항 일정은 10월 29일부터 2024년 3월 30일까지로 알려짐. 운항 일정에 따르면 국제선은 2019년대비 93%, 국내선은 99% 수준까지 회복될 전망이다. 동계기간 수요가 많은 일본, 동남아, 대양주 노선은 증편됐다고 알려짐. (매일신문) (<https://t.ly/6AmcB>)

Oil falls after U.S. stockpiles climb, Middle East tensions in focus

미국 원유 재고 및 달러인덱스 상승에 목요일(26일) 유가가 하락했다고 보도됨. 브렌트유는 0.9%, WTI는 1.1% 하락했다고 언급됨.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지상전 연기하며 갈등이 완화된 영향도 있다고 알려짐. 미국 원유 재고는 지난주 4.2억배럴로 약 140만배럴 증가했다고 알려짐. (Reuters) (<https://t.ly/gI034>)

Clarksons: Time will be a healer for bulkers as fleet slows down and takes time out for retrofits

향후 2년간 친환경 규제가 벌크선 공급에 연간 2% 정도 영향을 미쳐 수요 감소를 상쇄해 줄 전망으로 보도됨. Clarksons는 제한된 인도량과 폐선량 확대 개연성에도 벌크선 수요 성장율이 선대 성장율인 2%를 소폭 하회할 전망으로 언급함. 수요측 불확실성은 글로벌 경기 부진 및 중국 수요 불확실성이 있다고 알려짐. (Tradewinds) (<https://tinyurl.com/52hn9e8c>)

France's first FSRU starts delivering its cargo of Norwegian LNG

프랑스 첫 FSRU인 Cape Ann이 수입을 시작했다고 보도됨. TotalEnergies는 노르웨이산 LNG를 재기화한다고 설명함. TotalEnergies는 터미널 연간 생산량의 50%인 약 5BCM을 계약했다고 언급됨. Cape Ann은 유럽의 러시아산 가스 의존도 축소에 기여할 예정임. (Tradewinds) (https://t.ly/ZR_xB)

Ukraine eyes greater European gas storage role as it prepares for halt in Russian gas transit supplies

우크라이나가 유럽 가스업체들이 서부지역의 대규모 저장 설비를 계약하기를 기대한다고 보도됨. 약 35BCM을 수용할 수 있다고 알려짐. 한편, 현재 Gazprom과 5개년 계약은 2024년까지 우크라이나를 통해 유럽으로 1.09억CBM을 수출하는 내용임. 우크라이나는 연장 가능성은 없다고 언급하며, 유럽 국가들이 2027년까지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도를 없애길 기대한다고 알려짐. (Upstream) (<https://tinyurl.com/243ejenv>)

'Switch fossil fuels to zero by 2050 is an illusion', says SBM Offshore chief executive

SBM Offshore에 따르면 2050년까지 화석연료 의존도 없애기는 불가능하다고 보도됨. 전세계 약 80%의 기초 에너지원은 석유, 천연가스와 석탄으로 언급됨. 적은 비용의 합리적인 방법으로 에너지 전환이 필요하다고 알려짐. 파리협정에서 예상한 시나리오상 2050년에도 50MBPD가 필요한데, 여전히 FPSO가 필요하다고 설명함. (Upstream) (<https://tinyurl.com/5anuhnny>)